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주)에코프로

‘나눔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한다’는 기업철학을 모토로 지역사회후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사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차전지 등 대기오염 제어관련 친환경 핵심소재 및 부품을 개발하는 세계 선두주자 기업으로 발달을 하고 있는 청주 오창과학단지에 위치한 (주)에코프로가 그 주인공

충북도내 저출산 문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임신부 출산용품 지원 ‘마더박스 캠페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에게 ‘긴급 의료비 지원 워킹 캠페인’, (주)에코프로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 운영 등 전문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불어 사는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주)에코프로 이동태 대표이사를 만났다.

편집자주

Q.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개선 관련 기술개발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다. 이 미션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지역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사업을 하고 계신지?

우리 지역사회에 포커스를 맞춘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에코프로 임직원들과 대학생봉사단 ‘에코브리지’가 함께하는 환경정화 연합봉사활동.

출산용품 지원 ‘마더박스’· 긴급 의료비 지원 ‘워킹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 확대하며 ‘더불어 사는 기업문화 정착’ 앞장

충북 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에게는 ‘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있다. ‘마더박스’는 아동에게 필요한 유아용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청주시 내 소재한 기업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복지적 경제정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해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긴급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환아를 위한 ‘워킹 캠페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후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작년부터는 (주)에코프로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봉사단 ‘에코브리지’를 운영

하며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봉사를 진행하는 등 대학생들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해 지역내 우수인재와 대학생 자작자동차의 역량개발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대학생봉사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대학생들 리더십 및 봉사역량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자긍심 향상과 기업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에코프로 장학사업, 자작자동차 지원사업, 대학생봉사단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기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사회공헌활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기업 임직원의 자발적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나아가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임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공헌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한 직원에게는 별도 시상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가치와 공로를 인정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코로나19 등 다양한 팬데믹 상황에 걸맞은 지역사회에 발전과 구축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에코프로 미션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주 오창산단에 위치한 (주)에코프로 기업 전경.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영역 적절한 지원 통해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역량강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박형용 위원장(육천1)을 좌장으로 ‘충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 황명구 연구위원이 ‘충북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초발제를 한 뒤, 지정토론자로 김준환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진홍 충북대 노인복지협회장, 정경진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고광필 도 복지정책과장이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박진홍 회장은 “사회서비스원 성과와 평가를 통해 타 서비스원과 차별화를 두고 특화사업 등을 통해 민·관 협력의 예방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김준환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계기로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영역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민간사회서비스 시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센터장은 “사회적·정책적으로 중요한 ‘보육’ 영역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에서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정 이사장은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용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남아있지만 타지역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복지위원들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충북도, 내년 예산안 6조원 첫 돌파

복지고용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 1조9725억원 투자

충북도의 2022년도 당초예산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

충북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5조8382억원)보다 5.5% 증가한 6조1610억원으로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과 일상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2968억원 증가한 1조67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908억원 증가한 7733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뒀다.

위드코로나 사업 발굴과 완전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미래신성장 사업 집중투자, 지역 기반시설 확충정비,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섯가지 분야를 중점 투자사업으로 정했다.

지역경제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2710억원, SOC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정비 7810억원, 복지고용 등 포용적 사

회안전망 구축 1조9725억원, 문화체육 생활 SOC확충 및 관광생태계 전환 2170억원,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와 자연친화적 조성 8906억원 등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 맞춰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2억원)과 수출물류창고 지원(1억원), 지역 생산품 애용운동(2억원), 청주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3억원), 방역체계 강화(180억원) 등 28개 사업에 272억원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적극 재정과 건전 운영을 통해 경기회복의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옥천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옥천군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네트워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6개 장애인·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단체와 업무협약 교육 교류·관리방안 등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 기대

옥천군은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0일 군에 따르면 관내 26개

소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단체와 평생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 있는 업무 교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평생교육 업무협약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군은 그간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학습 요구 반영과 필요성을 근거로 해당 시설·기관 및 단체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사전 검토를 요청, 업무 협약 체결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협조,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체계, 학습동아리 구성, 교육 운영 등 연계 방안, 평생교육 관련 정보·시설·교육자료 등 교육 교류,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관리 방안,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 발전 업무협약은 평생학습원과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평생교육 시설·기관 및 단체가 만나서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학습원과 각 시설·기관 및 단체가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난 19일 군청 민원과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예방 캠페인

증평군드림스타트·괴산경찰서 등 관할 지역 기관 연계

증평군이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지난 19일 군청 민원과 앞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하고 효과적인

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1월 19일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에서 제정됐다. 한국에서도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군은 괴산경찰서,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증평군드림스타트 등 관할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신고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스티커 인증 활동,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서약,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홍보를 통한

올바른 양육법 개선 촉구, 아동권리보호와 신고방법 홍보리플릿과 홍보물품 배부 등이다.

더불어 이번에는 아동의 시각을 가상으로 겪어보는 VR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VR체험을 한 주민 김씨는 "훈육으로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부모로서 다시 한 번 어른들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백석현 괴산경찰서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성매매 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보호캠페인과 증평군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 전달



증평군은 16일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를 전달했다.

리프트 장착된 버스 1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 도모

증평군은 지난 16일 군청 주차장에서 증평군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버스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이흥식 증평복지재단이사장, 정찬연 증평군장애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장애인 버스에는 특별히 리프트가 장착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편의가 도모됐다.

전달식 참가자들은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성열 군수는 "이번에 제작된 장애인리프트 차량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및 활동영역이 더 넓어지길 바란다"며 "증평군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해소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군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청소년지도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3년간 지역 청소년 건강한 성장 뒷받침

영동군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청소년지도위원이 새롭게 구성됐다.

3일 군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 줄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했다.

군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영동와인터널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관련 분야에 청소년관련 사업에 강한 의지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도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신규위원 43명을 위촉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다.

이들은 향후 3년 간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해 청소년 건전생활

의 지도, 청소년수련활동 여건 조성, 각종 장려지원, 우범청소년과 유해환경단속,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영동군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행사를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도를 위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정기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보호 등의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괴산군·증원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 위·수탁

내년부터 5년간 위생·영양 관리



16일 괴산군은 증원대 산학협력단과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괴산군은 16일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

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 10월 수탁기관 심사관으로 선정된 증원대 산학협력

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증원대 산학협력단은 2022년 1월부터 5년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무를 수행하며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과 양질의 급식문화를 조성한다.

어린이 영양·위생관리 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식단 레시피 개발·공급, 순회방문을 통해 대상별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등을 지원한다.

보은교육청,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빵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선물



보은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부모들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행복교육센터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장애학생의 자기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성공적인 사

회통합을 위해 진행된 이번 제과제빵 프로그램(쿠키 만들기)에는 보은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5명과 학부모 5명이 함께했으며, 충북 장애인부모연대 보은군지회(회장 장은영)의 협조로 운영됐다.

이날 만들어진 빵과 쿠키 100여개는 보은군실버복지관(관장 고은자) 어르신들 70여명에게 전달되어 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장은영 회장은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어 지역 노인분들께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애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을 높이는 기회가 자주 생길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 지면 | 크기 | 배색 | 금액(원) |
|-------|---------------------------|----|---------|
| 1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300,000 |
| |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 컬러 | 100,000 |
| 2면~7면 | 4단 (360mm×138mm) | 흑백 | 200,000 |
| 8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250,000 |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SSN 충청북도 사회복지신문의

